

## 김종필증언록

### ‘소이부답笑而不答’ 출판기념회 성황

김종필(90) 전 국무총리의 40여년 정치 여정과 인생역정을 담은 『김종필 증언록』 출판기념회가 지난 3월 10일 오후 3시 雲庭재단 주최, 출판사 미래엔 주관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1천여 전, 현직 정치인 및 사회 각계 인사들과 옛 동지와 지지자들, 특히 정의화국회의장과 3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 자리에서 JP는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눌 기회가 마지막 일 것이라며 “지난 세월 고난을 감내하며 조국 발전에 맘 흘리며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옹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생애동안 항상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대해선 ‘사무사(思無邪·생각에 사악함이나 못된 마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날 기념회는 1천여 좌석을 모두 채운 가운데 JP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성우 배한성씨의 재치있는 사회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주요 내빈 소개가 진행되었는데 워낙 많은 전, 현직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약식으로 소개한 후, 이어 JP의 일생 역정을 담은 북 트레일러를 약 3분여 상영하고 중앙일보 ‘김종필증언록팀’ 박보균대기자가 화면으로 증언록 출판과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단상에서 축하 떡 자르기(사진 참조)와 축가를 부르면서 출판 기념의 식장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어, 각계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정의화국회의장,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대독 와타나베 히데오한일친선협회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

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직접 축사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것은 "권력의 정점부터 역경의 세월을 겪은 후 세상만사 이치를 터득해 이른 심오한 결론"이라며, JP와 같이 “소명으로서 시대를 개척하는 담대한 용기와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



▲ 왼쪽부터 이승윤 김진봉 나경원 강창희 이흥구 박관용 홍석현 와타나베

## "왜곡된 일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데서 의미 있고,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었던 역사적 빛을 갚았다는 홀가분한 생각"

를 갖춘 정치인이 아쉽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98·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는 와타나베 히데오일한협력위원회 회장 대독을 통해 "한국정치의 중추를 걸어오신 김종필 선생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토로하신 것은 역사의 새로운 일면에 빛을 비추는 일이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축사에서 "많은 회고록이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를 피해가느라 평범하고 한가했지만 JP는 우회하지 않았다. 격동의 순간을 솔직하고 실감나게 증언해 과거 어떤 회고담보다 현장성이 뛰어났다"고 증언록의 역사적 의미와 핵심을 말했다.

강창희 전국회의장은 "과거는 햇빛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적으면 신화가 된다"는 말처럼, 이 증언록으로 반세기에 걸친 많은 일들이 달빛에서 햇빛으로 나오게 되어 총재님의 정치는 허업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고 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 최초 시행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되돌아보면 JP는 온갖 난관과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역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JP는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잘 읽고 처신했던 정치인"이라며 "우리가 1960년대 빈곤에서 허덕일 적에 나라의 근대화를 앞세워 오늘날 우리 경제의 기반을 이룩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JP 증언록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고 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은 뒤 야권 통합을 거부하고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처지를 언급하며 "96년 총선에서 자민련 돌풍을 일으키면서 양당 구조에 도전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 축사 전문 참조)

이상 일곱 명의 축사에 이어 이날 출판기념회의 하이라이트로서 주빈이자 저자인 운정 김종필 JP의 장중한 사회가 '저자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이 진행되었다.

JP는 먼저 증언록에 대해 "그간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된 일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데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반세기 전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었던 역사적 빛을 갚았다는 홀가분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 정치는 한 시



JP 정의화 김수환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신경식

대가 저문 것 같다. 제 주변 전우들은 거의 다 세상을 하직하고 개발시대 정치인 중 나 한 사람 남아 있다”며 “아마 정치에 대해 한 말씀 하라고 아직 남겨준 것 같다”고 퇴장사이자 귀거래사를 시작했다.

그는 현실정치에 대한 조언으로 공자의 ‘사무사(思無邪·생각에 사악함이나 못된 마음이 없어야 한다)’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치가 목전에 닥친 선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갖가지 산재한 국가적 어려움을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가 국민의 안녕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 의(民意)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해 ‘정치 똑바로 하라’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관 없이는 올바른 정치관이 나올 수 없다. 국가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거나 대통령 되는 꿈만 꺾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민과 국가의 영생을 바란다면 작은 당리당략은 뒷전에 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신경식, 안철수, 김종인, 김무성, 정의화



그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나누는 기회는 앞으로 없지 않나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도 금할 길 없다”며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을 감내하며 조국 발전에 땀 흘리며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엿드려 감사드립니다”고 맺었다.

“머지않아 내 육신마저 버리고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악연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부덕의 소치로 본의 아니게 고통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빕니다.”

90세 노(老)정객의 연설에 6차례의 박수가 나왔고 끝날 즈음에 청중들은 숙연해졌다.

이어 나경원에비후보(4.13총선 당선자)등의 꽃다발 증정이 있던 후 출판기념회를 주최한 윤정재단 김진봉이사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하였다.

연설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온 김 전 총리에게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작별을 아쉬워 했다.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 이날 출판기념회는 많은 언론의 관심 하에 진행되었다.



## 증언록 출간 축하사

# 정의화

국회의장



### 증언록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가 될 것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어른이십니다. 오늘 그 살아온 역정, 바로 그 현대사의 역정의 기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증언록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 눈에 보는 것, 많은 분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서는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나선 이래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사명감으로 정상의 자리까지 오르셨고 평생 스스로를 경계하며 금도를 지켜온 분의 말씀이라 분명히 깊은 연유가 있으리라 여겨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리님께서 살아온 시대는 산업화의 시대이자 민주화의 시대이고 또 3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국심 하나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신군부 세력에 의해 숱한 고난을 겪으셨으며 이후 다시 국정 중심에 복귀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총리님이기에 정치는 허업이

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라는 총리님의 경구警句를 들으며, 저는 불교 경전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란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공空 사상과도 통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글귀를 온갖 세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시고 또 그 깨달음을 얻은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만사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총리님께서서는 권력의 정점부터 역경의 세월까지 모든 것을 겪어보신 후에 세상만사의 이치를 터득하여 이제 달관의 경지에서 세상과 인간을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된 것이며 정치는 허업이라는 심오한 결론에 이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19대 국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의 우리 정치는 안팎으로 닥친 국가적 위기 극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여 진정한 선진강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치 없이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정치인만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총리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시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와 복잡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정치인을 찾이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경청하며 신중하게 사리를 판단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총리님과 같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란 것을 깨달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증언록에 담겨있는 수많은 역사와 정치 현장에 대한 기록은 그런 정치를 위한 소중한 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맹자의 이루편離婁篇에 보면 심조자득深造自得이란 말이 나오니다. 깊이 탐구하여 스스로 터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근원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허업의 참 뜻을 깨달으신 총리님과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자득의 경지를 이루신 총리님은 이 시대의 큰 어른이십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후배들을 위해 빛나는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오래오래 건강을 잘 유지하여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일  
본  
총  
리  
대  
신  
  
나  
카  
소  
네  
야  
스  
히  
로



**역사의 일면에 빛 비추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

이번 출판은 참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동북아시아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김종필 선생 없이는 논할 수 없으며,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이후 국정의 중진으로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라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킬 것인가,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를 고뇌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암중모색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을 것이며, 선생의 이러한 고뇌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개의 정책 추진은 물론이요, 조국을, 한국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 아래 국가재건을 위해 몇 번이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실 때마다 선생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이 증언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민족의 발자취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의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확신합니다.

정치란 결과이며, 정치가는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피고라는 생각이 오랜 세월 정치에 몸담아온 저의 솔직한 감회입니다.

정치가는 누구나 스스로의 판단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자각 아래 혼신의 힘을 다해 결단을 내리고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고독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단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국 정치의 중추를 걸어오신 김종필 선생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토로하신 것은 역사의 새로운 일면에 빛을 비추는 일이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한양국을 아우르는 귀중한 증언이자 양국의 우호발전을 위한 불멸의 가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서도 출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을 축하 드리며, 김종필 선생과의 오랜 세월을 걸친 변함없는 우정과 교분에 감사 드림과 동시에, 선생의 가일층의 건승과 활약을 기원 드립니다.

(와타나베 히데오 한일친선협회 공동회장 대독)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 ‘회고록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

오늘 운정 김종필총재님의 인생을 집대성한 김종필증언록의 출판기념일을 맞게되니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운정은 역대 어떤 대통령 못지않게 우리 현대사의 성공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업적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빛을 본 운정 김종필선생의 회고록 김종필증언록은 박정희대통령에서 3김 시대까지 43년을 관통하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최후의 증언입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선생의 증언록은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사에 큰 인물은 많지만 운정만한 인생을 산 분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정선생에게서 정도전과 한명회, 율곡의 역정과 향취를 느낍니다. 정도전에서는 나라의 기틀을 세운 비전과 집념이, 한명회에서는 난관을 타개하는 뱃심과 지략이, 율곡에서는 개혁과 구국의 성심이 JP의 덕목과 겹쳐 보입니다.

한국 정치의 기록 문화는 빈곤합니다. 많은 회고록과 전기는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를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한가합니다. 「김종필 증언록」은 역사의 1차 자료입니다. JP는 우회하지 않습니다. 선생은 파란과 곡절의 현대사를 정면에서 다루고 기억했습니다. JP는 격동의 순간들을明明是 명대로 암암은 암대로 솔직하고 실감나게 증언했습니다. 밝은 역사는 온고지신대로 어두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후세에 남기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증언록의 역사성과 사료적 가치, 현장성은 과거 어떤 회고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김종필증언록에는 국정의 결단, 리더십의 고뇌, 권력의 내면이 진솔하게 담겨있습니다. 긴박감과 흥미가 넘쳐 흐릅니다. 증언록을 펼쳐드는 순간 독자들은 곧바로 현대사의 특별한 공간에 진입합니다.

「김종필 증언록」은 오늘을 사는 지성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선생은 조국근대화를 내세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애국심과 열정은 뚜렷했고, 선견지명은 놀라웠습니다. 선생은 혁신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며 자기 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JP는 저희 집안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 정치적 격변기 때, 우리 집안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겪어야했던 악몽이었습니다. 집안의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운정 선생께서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저의 장인은 6.25때 육본에서 육군 중위로 JP와 처음 조우했다고 들었습니다. 뒤에 JP는 5.16의 주역으로, 장인은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법률고문으로 만났습니다. 두 분은 신설된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과 차장으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생전에 장인은 제게 박정희 시대의 2대 주주는 누가 뭐래도 JP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놓지 않는 총재님의 박학과 다방면의 재능을 늘 칭송하셨습니다.

이제 반세기 세월이 흘러 우리 한국의 거목巨木 운정 어른의 증언록 출간에 제가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인연의 기이함과 소중함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필 증언록」이 역사의 1차 자료로서, 오늘을 사는 지성인의 귀감으로서, 젊은이들의 도전을 자극하는 한 멋진 인간의 발자취로서 많이 읽히길 기대합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



증언록으로 반세기 동안 가려진 역사가  
달빛에서 햇빛으로 나오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총재님을 총재님으로도 모시고 총리님으로도 모셨습니다. 오랜 동지들과 동료들 그리고 각계 원로들과 함께 이 뜻 깊은 자리에 서고보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회고록 집필을 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총재님께서는 늘 “나는 회고록같은 것은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소이를 짐작은 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타까움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기분입니다. 세상에는 회고록이나 증언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회고록이 서재에 홀로 앉아 쓰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증언자들인 기자들 앞에서 그대로 올려 나오는 육성의 회고여서 얼마나 더 생생하고 진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총재님의 생애가 곧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큰 결심을 하시고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신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고록을 쓰시지 않겠다는 것 말고도 총재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늘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총재님의 정치는 허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이 걸어오신 지

난 생애가 어떤 길이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길고 긴 세월을 감당해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의 나라를 유항산유항심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총재님은 초석이 되고 평생을 소진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거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력과 강인한 에너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실은 실로 역사적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찌들어있던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뛰어난 작가 한 분은 “과거는 햇빛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적으면 신화가 된다”는 참으로 문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총재님의 증언록으로 반세기에 걸친 많은 일들이 이제 제대로 달빛에서 햇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의 정치는 허업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곡되고 폄훼되었던 우리 현대사의 구석구석이 옹건 정리되고 제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증언록의 제호가 된 총재님의 ‘소이부담’의 마음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역시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인의 깊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소이부담의 그 그윽한 마음에서 뿜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두 기둥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지 못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이 그야말로 허업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새 봄에는 총재님께서 더욱 건강하셔서 나라를 위해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사료

김종필총리님, 존경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요즘 제 마음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꽃샘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음이 편치 않는데 오늘 모처럼 오고 싶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여기 오면서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여전히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을 보니 반가움이 더합니다. 제가 몸무게로는 총리님보다 조금더 무겁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무게는 총리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까닭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표현입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데 총리님은 우리나라 발전의 대표적인 주역으로서 ‘근대화-민주화-복지화’라는 순서로 대한민국을 이끈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책에도 나오지만 “민주주의는 빵을 먹고 자란다. 민주화는 배고픈 사회에선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 역사와 국민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

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역사발전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해 경제개발도 못하고 민주화도 실패한 사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총리님은 우리나라가 빈곤과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즉 대한민국이 가지 않은 길을 온 몸으로 헤쳐 나가는 참 용기를 보여 주셨다. 제가 요즘 총선을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에 국민공천제 최초 시행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돌아보면 총리님은 온갖 난관과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역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총리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53년 전인 1963년 미국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말로 “덕을 베푸는 사람은 떠나도 덕이 남는다”는 말씀을 남겼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 총리님께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총리님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시대를 읽는 혜안과 그 너머까지 바라보는 통찰력을 계속 저희 곁에서 후배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 스승님으로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앙일보사의 증언록 팀이 무려 1년 동안 매주 총리님을 인터뷰해서 오늘 증언록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틈틈이 즐겨 읽었는데 아마 가장 높은 열독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료로서 또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김종필 증언록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회 계좌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운정재단

김종필  
더민주당비대위원장



증언 행간마다 우리가 배울 것 많고  
후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어

먼저 김종필총재님의 증언록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2014년경에 노재봉전총리와 김종필총재님을 모시고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노전총리가 “왜 총리님은 회고록을 쓰시지 않습니까?”하고 여쭙니까, “나는 절대 회고록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 총리님만 알고 계신 것이 많은데 그걸 후대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했으나 총리께서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어떻게 총리님을 설득시켰는지 오늘 이 책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저도 완전히는 읽지 못했으나 신문에서 간헐적으로 읽었는데, 이 분이 세상을 사는데 정치인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상황을 적절하게 잘 읽고서 처신을 하셨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에 나라의 근대화를 앞세워서 오늘날 우리 경제의 기반을 이룩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1987년에 현재의 헌법을 만들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민주화를 얘기해도 밖에서 보기에 한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사회는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민주화 사회라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997

년 김 전 총리의 단안에 의해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이뤄져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한국이 경제성장과 소위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평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증언록을 읽어볼 것 같으면 행간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안보,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김종필총리님이 증언한 증언록의 행간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증언록을 통해 후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때때로 상황에 대한 좀더 직설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나라가 조금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공동대표



정치언어 품격을 지키며  
낭만과 풍류 지닌 큰 인물의 궤적

저는 중앙일보에 연재된 김종필총재님의 증언록을 한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총리님 증언록에 우리 현대사의 영광과 질곡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한 시대와 호

## 폐회사

흡하면서 역사를 써갔던 한 인물의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을 깊게, 길게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회에서 하얗게 타버린 재와 서쪽 하늘에 벌건 태양을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읽을 때 왜 정치는 허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가슴 깊이 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소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당구조 양당구조에 도전하신 것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 구조를 해집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리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정치생활 동안에 정치언어의 품격을 지켜오신 것은 저희들 정치후배에게 정말로 큰 귀감이 됩니다. 특히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그림과 글씨를 즐기셨고 음악과 체육에도 능하셨습니다. 직접 옷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회고록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어느 진보 정객이 요즘 보수에 총리님 같은 낭만과 학식 그리고 풍류를 가지신 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총리님께서 숭한 오해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민족과 국민을 위한 길에 매진하셨듯이 부족한 저입니다만 이 나라를 더 좋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밝게 하는데 흔들림없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같은 후학들에게 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봉

운  
정  
재  
단  
이  
사  
장



### 화분의 꽃 보다는 밀거름 신조로 근대화와 민주화 이룩

존경하는 김종필 총재님의 증언록 출판기념회로 존경과 사랑이 오가고, 축하와 정감이 넘쳐흐르는 복되고 뜻 깊은 자리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총재님께서 학덕을 겸비하시고 정감과 낭만과 꿈을 가지신 고매한 인격자이시며, 결단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추시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며, 꽃화분의 꽃이 되기보다는 밀거름이 되겠다는 신조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광풍노도를 슬쩍 비켜설 줄 아는 멋과 역사적 통찰력으로 조국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총재님은 자신을 빛내기 보다는 어둠을 걷어내는 빛을 만든 지도자셨습니다.

총재님은 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총재님의 국가관, 가치관, 인생관, 사생관을 후생들이 뒤따라 배우고 실천함에 꾸밈없는 생생한 이 증언록은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이 고급 양장본, 단행본으로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박보균 부사장·대기자, 전영기 논설위원, 최준호 차장, 한애란 기자, 그리고 미래엔의 김영진 사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축하 말씀을 해주신 정의화 의장, 홍석현 회장, 강창희 의장, 김무성 대표,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대신께도 감사드립니다.

## 저자 말씀 “증언록 출간의 변辯”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5월 이 자리에서 화보畫報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꼭 열 달만에 현대사 증언록證言錄책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머리 저자 서문에 썼습니다만, 이 책은 자서전自敘傳이나 회고록回顧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언證言의 기록지記錄紙입니다.

5.16혁명 이후 반세기동안 헌정에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 ‘그 시대時代 그 현장現場 그대로’를 증언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반신불수半身不隨의 육신肉身이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기억력을 어지간히



▲ 윤정 김종필 연설 모습

남겨주셔서, 길다면 긴 40여년 정치 여정旅程의 주요 대목들을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인터뷰로 역사의 실제적實體的 진실을 발굴發掘하기 위해 애써주신 중앙일보를 비롯해 여러모로 도와주신 주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년 가까이 중앙일보에 연재된 저의 현대사 증언 ‘소이부답笑而不答’은 나름대로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歪曲된 일부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이 그 첫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반세기 전 혁명革命으로 세상을 뒤엎었던 역사적 빛을 갚았다는 홀가분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繁榮과 민주주의는 그 ‘혁명의 성공’에 기반基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이 교차交叉하는 가운데 시대를 관통貫通하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논리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논리 위에서 성장합니다. 흔히 오늘의 잣대로 과거事를 재단裁斷하는 것은 사려思慮 깊지 못한 일입니다. 어제의 간난艱難과 도전과 극복克服 위에서 오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는 경건敬虔해야 합니다. 또 역사발전에 있어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교훈과 진보進步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현대사 증언’에 임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출판된 이 증언록이 우리나라 현대사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매우 분주奔走할 때인데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시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공감共感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나라 정치는 한 시대가 저문 것 같습니다.

개발시대開發時代 정치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고 아직 남겨둔 것 같습니다. 많은 상념想念이 오갑지만, 오늘의 이 시대는 참으로 엄중嚴重한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沈滯로 수출이 줄고 기업과 민생民生이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梗塞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促求하고 국민의 인내와 단합을 이끄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전目前에 닥친 선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갖가지 산재散在한 국가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안녕安寧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염려念慮하고 있습니다.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이라는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비판합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는 소리가 저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우리 정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국태민안國泰民安’ 아닙니까. 정치인은 무엇보다 먼저 투철透徹한 국가관國家觀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모든 가치價値의 최상위最上位에 두어야 합니다. 국가관이 없이는 올바른 정치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철저한 국가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거나 대통령 되는 꿈을 꾸어서는 안됩니다. 세상 어지럽히는 헛된 꿈은 접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한결같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생각해야 하며 사심私心은 버리고, ‘사무사思無邪’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生存과 국가의 영속永續을 바란다면 작은 당리당략黨利黨略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정치생명을 걸고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를

추진했던 이유 또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한 결단決斷이요 호소呼訴였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를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제도를 버려야 국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주인 되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국가관에 투철한 후진後進 정치인들이 꼭 계승繼承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이 아흔을 구순九旬, 졸수卒壽라고도 합니다. 인생을 졸업卒業한다는 말입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90 평생 살아오면서 애증愛憎과 회한悔恨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머지않아 내 육신마저 버리고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악연惡緣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부 용서하러 합니다. 모두가 한 생애의 업보業報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부덕不德의 소치所致로 본의 아니게 상처傷處를 드린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 될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을 감내堪耐하며 조국발전에 땀 흘리며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애生涯 동안 항상 동행同行해 주시며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無窮한 융성隆盛을 희원希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출판기념회를 마련해주신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김영진 미래엔 대표, 그리고 雲庭재단 김진봉 이사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